

## 스바냐 1장

1. 선지자의 조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스바냐는 4대조까지 기록되어 있다(히스기야 - 아마랴 - 그다랴 - 구시 - 스바냐). 특별대우 같은데 왜 그럴까?

**요시아 왕과 인척관계(두 사람 다 히스기야의 후손)임을 밝히려고(?)** 스바냐는 요시아 왕의 먼 조카뻘이 된다(히스기야 - 므낫세 - 아몬 - 요시아). 므낫세와 아몬이 악독하게 우상을 섬겼지만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스바냐의 힘이 컸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리라.

2. 2, 3절은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홍수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창 9:11):** 끝까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면 모든 자연계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3. 종말적이고 보편적인 이 심판(2, 3절)은 노아홍수보다 더 심한 심판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 창 6:5-7을 참고로 해서 생각해 보자.

노아홍수 때에는 바다의 물고기는 언급이 없다.

4. 이스라엘이 행한 주범죄는 우상숭배였다. 특히 요시아 앞의 두 왕, 므낫세와 아몬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우상이 본문에 나타나 있다. 찾아 보자. (끝이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휘파된다. BC 622)

**바알, 일월성신, 말감:** 그마림은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을 가리킨다(왕하 23:5, 호 10:5의 '제사장')

5.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분류해서 간단한 말로 정리해 보자.

- 1)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
- 2)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 3)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 4)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
- 5)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1) 우상의 제사장:** 그마림이나 제사장이나 둘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마림이라고 번역된 자들이 좀 더 상위 그룹 아니었을까?

**2) 점성술사?**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특히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뭐라고 하지?

**3) 종교적 혼합주의자:** 말감은 아마도 암몬 족속의 신인 '말감'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양쪽 주인을 다 섬긴다는 것은 결국 어느 쪽도 섬기지 않은 것이다.

**4) 배교자**

**5) 불신양자**

6. 스바냐는 왜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4) 경고하는가?

**오래 전에 이미 멸망해버렸기 때문이다:** 북 이스라엘은 BC 722에 앗수르에 멸망당했다. 스바냐의 이 예언은 요시아가 종교개혁(BC 622)을 일으키기 몇 해 전에 행한 것으로 추정한다(BC 627-626).

7.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분이시 제사를 드릴 분이 아니다. 그런데 1) 왜 희생을 준비하시는가? 2) 그렇다면 청할 자는 누구일까(?)

1)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용 제물처럼 취급하겠다는 뜻이다(18, 참고, 수 6:18의 '바침이 되어') 죽이겠다는 말이다.

2) 청할 자는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도울 자 즉 침입해 올 이민족을 가리킨다. 구경꾼도 포함된다.

8.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희생제물이 될 사람들은 몇 종류가 있는지 찾아서 정리해 보자.

1) 방백, 2) 왕자, 3)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8, 방백과 왕자들 혹은 권력자 가까이 있는 지도자들), 4) 심복들(9, 힘없는 사람들의 짐 문턱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상관에게 갖다 바친 죄), 5) 상인들(11: 교역상대자들이 없어졌음(막데스 거민들), 6)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자(12):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

9.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날인가?

**심판의 날(희생의 날: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 곧 죽임을 당하는 날):** 용사가 애곡하는 날이다(14). 용사가 애곡하고 있으면 끝장이다. 누가 싸울 것인가? 남은 것은 고통뿐이다(15).

10.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변질(?)된 주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4-5, 17-18):**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여호와와 질투를 유발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가 우상숭배였음을 보여준다. 이게 다른 모든 범죄의 근본이다.

11. 여호와와 희생의 날에 여호와께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찾는다는 말(12)은 심판의 어떤 점을 말하는가?

**심판의 철저함:**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신다면 얼마나 은혜로우니까는 심판의 날에는 심판도 이렇게 철저하게 행하신다. 철저한 분은 무얼 하셔도 철저하게 하신다. 어문(북쪽)에서 막데스 지역(남쪽 저지대, 상업지구)까지(10-11) 빠진 곳이 없을 것이다.

12.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은 우연이니 믿을 것은 자신의 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다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허풍 치며 사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찌꺼같이 가라앉은 자(12, 렘 48:11):** 포도주 통에 가라앉은 찌꺼기, 어떻게 해서 자신이 거기에 있는지, 얼마나 무력한지, 조금만 흔들어도 떠오를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도 잠시 후에 걸러내어 버려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포도주의 질이 떨어진다.

13.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특히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위기의 때에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데....?

**은과 금:**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더욱 중요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나아가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진다.

14. 부모나 선생님이 매를 들 때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다. 농담이겠지만 '나도 선생이 되어야지' 한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느끼는 심경은 안타까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서글픔일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은? 분노? 슬픔? 배신감?

**질투(18):** 역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질투란 표현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으실 그 분이 이런 표현까지 동원할 때는 각오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 전에 틀어졌어야 한다.

15. 분노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면 무엇이며 사람에게서 찾으려면 무엇인가?

**질투:** 우상숭배

**거치게 하는 것(3):** 들무더기, 혹은 던지다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원어의 의미가 불확실함

**그마림:** '검은 옷을 지님'이란 뜻으로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가리킴

**어문(魚門):** 예루살렘 성문 중 하나, 요단과 갈릴리의 고기가 운송되던 북쪽 문

**막데스:** 어문과 반대쪽 지역을 가리키는 듯

**제이구역:** 아마 예루살렘을 제일구역, 제이구역 하는 방식으로 구역을 나누었던 모양.

## 스바냐 2장

1.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1)? 말은 부드러워도 내용상 엄청난 모독이다. 이 말이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인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욕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험한 말로 고향을 질러야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표현 자체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일까? 3절의 '세상'의'라는 표현을 참고하면 굳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을 향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한 자(3) 일 수밖에 없다.

2.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여서 뭘 하려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다:** '모일지어다'로 번역된 말은 짚이나 그루터기를 찾아서 굶어모으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분노의 날에 피할 길이 생긴다.

3. 광음이 거갈이? 광음이 더 빠르는데? 왜 빛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겨에 비유했을까?

**광음은 세월(날)을 뜻하는 말이다(죄송!!!):** 여호와와 진노의 날이 겨가 불에 타듯이 빠르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다.

4. 부인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믿지 않는 남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천국 갈 때는 마누라 치맛자락 꼭 잡고 가면 된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굳이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회개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다. 순식간에 임하는 심판의 날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

5. 함께 심판을 당하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블레셋의 도시다:** 4-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다. 블레셋은 가드까지 포함해서 5개 도시의 연합체였다. 여기서 가드만 제외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유다왕 웃시야가 가드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아(대하 26:6) 아마 그 이후 재건되지 못했던 것 같다(암 6:2).

6. '해변이 초장이 되고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있을 것(6)'이란 말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파괴될 것이란 뜻이다. 이 말이 어떻게 파괴를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자.

**사람이 많이 살던 도시가 풀만 우거진 풀판이 되어버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해변이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어 살던 곳을 가리킨다. 거기에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있을 것'이란 말은 '거민이 없게 되었다'(5)는 뜻이다.

7.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는 없다. 유다도 이방 열국도 다 심판을 당한다. 그래도 자기 백성 유다는 좀 다르지 않을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은 동일하지만 유다에는 남은 자(7)가 있어서 회복된다.

8. 둘째 아들이 잘못하여 아버지께 매를 맞는데 말이야 '아버지,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때렸다. 본문에서 그런 형을 찾아보자.

**모압과 암몬(8):** 이 두 족속은 오랫동안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발락(민 22-24장), 에글론(삿 3:12-30)이 대표적인 경우지만 그 외에도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삼상 12:9, 왕하 3:5-27, 삿 10:6-11, 삼하 10:1-11, ...).

9.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무엇을 차지하는가?

**블레셋의 성읍(7)과 모압과 암몬의 소유(9c):** 이방 열국은 심판으로 완전히 멸절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다. 모든 것은 살아남는 자의 것이다.

10. 모압과 암몬이 장차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는 선언(9)은 참으로 잔인하다. 잊어버리고 싶은 악몽을 되새기는 일이며 다 나아가는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꼴이다. 왜 그런가?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살아남은 듯과 그 딸들에게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이다. 겨우 살아남아 온갖 치욕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원위치라니?

11. 열국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본문에 참고할 만한 근거가 없는 나라는 평소실력을 동원해서 해 보자.

- 1) 동쪽에 있는 나라: 모압과 암몬
- 2) 서쪽에 있는 나라: 블레셋, 그렛(그레데): 지중해 해변
- 3) 남쪽에 있는 나라: 구스(구스인은 흑인을 가리키고 지금의 이디오피아)
- 4) 북쪽에 있는 나라: 앓수르(니느웨는 수도)
- 5) 그 중에 당대 최강이며 도무지 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라: 앓수르

12. 이렇게 사방의 모든 열국을 치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겠지만(10, 8, 15)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11):** 열국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을 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심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이다.

13.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찾아보자.

사람이 많은 도시    각양 짐승(야생동물)이 우글거림  
 완벽한 관개시설로 물 걱정이 없던 도시    사막처럼 메마름  
 사람이 살던 집    당아와 고슴도치가 사는 집

14. 니느웨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교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15).

15. 선민사상에 젖어있는 유대인들이 들기에 기분 나쁜 표현을 들 찾아보자.

1)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3):** 유대인 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

2) **이방의 모든 해변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11):** 여호와께 경배를 성전  
 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자기 처소에서? 그것도 해변의 모든 사람들이? 해변으로 번역된 단어  
 는 '섬'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의 끝에 있는 백성들까지 가세한 보편적  
 인 일이 될 것이다.

16. 아이들끼리 놀다가도 '셋 셀 때까지 행복해라. 하나, 둘, 둘 반, 둘하고 반의 반.' 이렇게 행복을  
 요구하면 체면을 봐서라도 행복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싸움이 된다. 공의로우신 하  
 나님께서 심판을 하실지라도 심판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가능하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심경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2절:** 네 번이나 반복되는 ~하기 전에

17.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함이었다. 스바냐가 소리소리  
 지른 이유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니느웨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스바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동이 없다.  
 다만 개별적으로 피할 수 있을 가능성만 말한다.

18. 스바냐의 이름 뜻은 '여호와에게서 숨김을 받는다' 이다. 어디에 자신의 이름을 은근슬쩍 건드  
 리는가?

**2:3:**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여호와의 분노에서 가리워진다'는 뜻이다. 스바냐의 메시  
 지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다.

후욕(詬辱): 꾸짖고 욕함

나의 미친 백성: 남은(나머지) 내 백성 (용례: 후세에 공적을 끼치다)

당아(塘鵝): 먹지 못하는 부정한 새의 하나 (올빼미 종류)

치소(嗤笑): 빈정거리며 웃음

쇠진(衰盡): 쇠하여 없어짐, 송두리째 망함

### 스바냐 3장

1. 1절의 성음이 그 자체로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다음에 있다. 어느 성음일까?

**예루살렘:** 방백이나 재판장은 그렇다고 쳐도 선지자, 제사장(4)은 이스라엘의 직분이다. 성소와 율법이 있는 곳이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2. '또학하다'는 말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동족들을 합부로 다루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범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패역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3. 손바닥 두 개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심판도 마찬가지다. 심판이 불가피한 두 가지 측면을 3-5절을 참고해서 말해 보자.

이스라엘의 총체적 부패(대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주체)

4. 이스라엘의 지도층 전부가 부패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 누가 가장 죄가 큰지 말해 보자(다수결로, 토론용).

**방백:** 사냥감을 노리는 부르짖는 사자다. 백성을 인도해야 할 자들이 잡아먹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말만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재판장:** 이틀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울 궁리만 한다.

**선지자:** 경솔하고 간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부로 내뱉는 경우는 경솔한 것이며 못된 의도로, 고의로 그런다면 간사한 것이다.

**제사장:**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성소의 일도 그냥 일상사 일 뿐이다. 그렇게 무신경하게 성소의 일을 하는 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다.

5.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내실까?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지만 눈이 어두운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결한 눈으로 보면 보인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청결하지 못하다. 부끄러움도 모른다. 결국은 심판이라는 특별한 공의를 맛보게 될 것이다.

6. 예루살렘에 대해서 책망을 하다가 갑자기 열국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6) 이유가 무엇일까?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뭔가를 깨달으라:** 심판 중에도 공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으라(7).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뜻이다.

7. 하나님의 관곡한 당부에도 유다는 들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시려는가?

**나라들을 소집하여(8):** 외적을 동원하여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다.

8. 3장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고 각 문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1) 첫 문단: 1-8(심판)

2) 둘째 문단: 9-20(회복)

9.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구원의 확장(9):** 이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저버림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했던 것처럼!

10.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逆으로,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

**교만하지 않으며(11), 끈고하고 가난하며(12, 산상수훈 팔복의 첫 번째),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궤홀한 혀가 없음(13):**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11).

11.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내가 홀은 자의 딸(10), 이스라엘의 남은 자(13),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14)

12. 유다야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14)!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므로(15):** 세 가지 찬양에 세 가지 감사다! 찬양과 감사를 짝을 맞추어 반복하는 것이 재미있다. 그만큼 큰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

13.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좌절, 절망의 표시다. 더 이상 시온이 그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17)** 회복도 자기 탓이 아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무능한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책망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4.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실까? 더구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하면서(17)?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신다는 의미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신 만족감을 누리신다는 뜻이다. 너로 인하여 만족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피로 회복을 위해서 가만히 누워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의미한다.

15. 회복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며 무거운 짐진 자(18),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19)

16. 다음 문장은 대체로 옳은 것 같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본문의 내용을 살려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받은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극렬한 심판을 한 후에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10, 20).

17.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시다. 본 장에서도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과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그 근거가 되는 단어를 두 개만 찾으면 무엇인가? 심판하실 때의 ( ) 회복시켰을 때의 ( )!

심판하실 때의 (질투, 8) 회복시켰을 때의 (기쁨, 17)

18.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가? (같은 원리로 어떤 부모?)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전능자:** 능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기쁘다면 그 다음 일은 우리가 걱정하거나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거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은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다.

19.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18)란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어서 안타까워하는 자란 뜻이다. 차비가 없거나 병이 들어서 못 가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치욕)는 소식은 정말 무거운 짐이다.

패역(悖逆):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함

간단(間斷): 잠깐 끊음

궤홀(詭譎):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속임

수욕(羞辱): 부끄럽고 욕되는 일